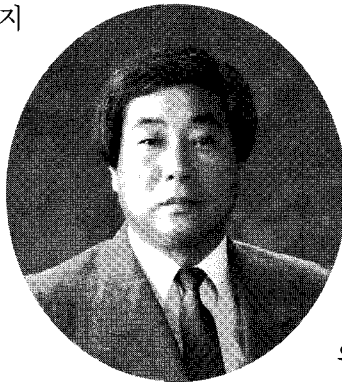


양분된 조합의 통합 최우선 조합사 확합과 이익도모에 힘쓸 터

권중식 / 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제 14년 2월 22일 한국합성수지
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총
회를 열고 제3대 권중식
회장을 제4대 회장으로 연임
시켰다. 이에 권중식 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
았다.



252로 플라스틱제품으로 폴리에
틸렌필름(플라스틱봉투, 포대
및 방수시트, EVE LLDPE포
합), FRP제품, SMC물탱크
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3기 회장 임기를 돌
아보며 지금까지 적극적인 협조
와 아낌없는 성원 보내 주신데 대

해 감사와 지난 제3대 회장 임기동안
준비했던 계획 중 이루지 못한 것이 있어 아쉬
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저를 믿고 또 한번의
기회를 주신데에 대해 감사하며, 지난 임기동
안 추진하지 못한 갖가지 사업을 이번 임기동
안에는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연합 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

우리나라 플라스틱산업의 육성과 회원조합
의 조합원상호간 복리증진을 위해 협동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익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1998년 11월 17일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구역)에
의거 협동조합은 행정구역인 특별시, 광역시,
도를 업무구역으로 한다는 근거에 따라 1994
년 전북지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에 11
개시·도 지방협동조합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
니다.

회원조합인 각 시·도 지방협동조합에서는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한국표준산업부류상

연합회의 현안

우선 양분화 돼 있는 플라스틱 단체가 지방
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회 체제로 나가야
하는가, 아니면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전
국조합체제로 창구를 일원화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회원조합원의 편익도모를 기할
수 있도록 동 조합과 통합하도록 노력해 나갈

지방조합간의 이익 및 화합 도모

것이며 회원조합사의 의도에 따라 체제를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때문에 우선 환경문제와 같은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부터 상호 협력하여 풀어나가도록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방조합간의 이익 도모와 화합을 위해 홍보 및 지도교육의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각 지방 조합간에 경쟁으로 인한 문제를 조율하고 이에 앞서 중국프라스틱협회와의 교류를 통해 지방조합이 보다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양분된 유사조합과의 통합 문제

양분된 유사조합과의 통합 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방화 추세에 최적의 구도인 연합회 및 지방협동조합 체제 구축을 위해 조직강화와 기능활성화를 기해 나가면서 유사협동조합과의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

첫째로 연합회와 지방협동조합간 화합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사장 협의회, 상무이사 협의회, 분과위원회, 조합원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에로사항을 청취하고 운영의 공개로 투명한 조합행정을 구현할 것

이며 중요 현안문제는 반드시 지방협동조합 이사장과 사정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로, 연합회의 수익금 문제는 적정한 수수료 조정과 건축예산 집행으로 발생된 실과는 약체지방협동조합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셋째로, 인력관리에도 능력 위주의 인사원칙을 기본으로 삼아 적재적소에 배치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조합행정에 불편점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양분화된 유사협동조합과의 대립 갈등을 하루속히 해소시킬 수 있도록 획기적인 통합 방안을 제시해 업계와 조합원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접근시켜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불편한 관계에 있는 광폭 PE필름 업체, 대구경북 PE필름 생산업체, 위생용 강화 플라스틱 업체와의 문제해결의 구심점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증 획득으로 PL법 시행에 맞춰 조합원사의 제품의 품질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빠른 시일내에 KOLAS 지정획득을 목표로 조합원사 생산제품 검사업무를 직접 관장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권해진 기자